

〈답없는 너에게〉를 읽고

손봉호 교수님께 보내는 답신

고등학생 홍예현이 손봉호 할아버지께 쓰는 편지

손봉호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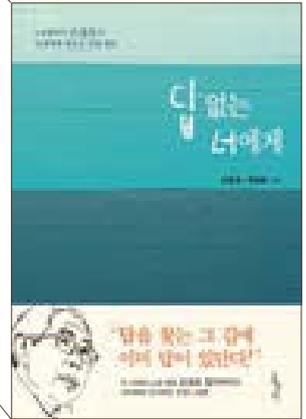
저는 이 책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을 때,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갈한 표지에 밝게 빛나는 책 제목, “답 없는 너에게”는, 얼마 전에 있었던 모의고사 성적으로 충격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성적표는 잠시 서랍 안에 넣어 두고, 책상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책을 펴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마음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분노와 좌절감도 많습니다. 인생은 저희에게 한결같이 답을 요구하지만, 저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은 뭘까?”,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까?” 물론, 답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가짜 꿈들 말입니다. 의사, 변호사, 외교관... 정의나 인류 평화를 위한 꿈이 아닌, 돈과 성공을 위한 헛된 열망으로 이루어진 저희의 꿈들 말입니다. 자신의 꿈도 아닌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하루 18시간 이상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돈과 학벌에 눈이 멀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지요.

더군다나 신앙 안에 머무는 학생들은 더욱 힘듭니다. 공부라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성과 음란물로 가득찬 이 시대의 문화에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뒤쳐진 채 세상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어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삶과 미래에 대한 회의를 안은 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희보다 한 발 앞서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자신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청

홍예현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다양했던 아이.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선수, 중학교 때는 바이올리니스트, 고등학교 때는 통일된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는 외교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남미 문화에도 큰 관심이 있어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커서 한-남미 협력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통일을 꿈꾸며 하루 빨리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픈 고등학교 2학년이다.



소년들의 고민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을 위해 너무나 귀한 조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탓인지, 저는 때때로 친구들을 대하기가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마음에 맞는 베프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나만 따돌리는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성친구와 교제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한 친구관계의 중요성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답을 주신 항목은 공부였습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할아버지는 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고상한 야망”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정의와 인류 평화를 위한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아름다운 꿈, 그것이 바로 진정한 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꿈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공부라는 것,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부보다 신앙과 주일을 더 소중하게 지키

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답해주신 질문은 삶과 행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개인 경험과 옛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사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자세로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더 크고 행복한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할아버지의 풍부한 지식과 생생한 경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의 고민을 하나하나 공감하며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했던 공부도 어느새 꿈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이 되었고, 고통스러웠던 인간관계도 어느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같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좋은 어른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경기도 송탄에서 **홍예현** 올림

파주 주사랑교회 고등부 정문선 선생님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날독¹⁾에게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90여 명의 날독을 보면 황홀하고 감사합니다. 공부만 하기에 부족하고 바쁜 고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모습 그 자체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날독의 생기 없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무덤덤한 얼굴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시럽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 왔을 텐데 말입니다.

선생님은 9살이나 어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언 9:10)는 말씀이 진리임을 생생하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9살이나 어리고, 세상 경험도 적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공부도 나보다 더 안하신 것 같은데(^_^),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찾아가다 보면, 나보다 훨씬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로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왔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의 의미를 우리 고등부 날독 친구들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에베소서 5: 15-17)고 권면했습니다. 존경할만한 멘토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빨리 순종하는 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맞는지 따져보고, 진짜인지 증명해보고 하는 건 물론 좋은 태도이지만, 믿을 만한 권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혼란과 고난의 시간을 짧게 하고, 귀한 인생의 허비를 막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손봉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옥명호 선생님이 정리하신 『답없는 너에게』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많은 지성인들의 멘토가 되시는 70대 노학자이자, 60여 년 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분이 십대들에게 띄우는 인생 편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그분이 살아오신 시대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인생이 겪게 되는 경험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성교제, 우정, 가족관계, 진로, 공부, 책과 미디어, 사회와 개인의 관계, 행복, 고통, 돈, 정직, 외모지상주의 등등. 그분도 여러분과 똑같이 10대를 거치시면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고, 신실하게 살아

정문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청소년세계관 아카데미 고전읽기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교대 독학사 칼리지에서 〈교육학개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고등부교사와 어린이세계관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는 것과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 책임기-나눔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를 받고 자란 우리 P세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것을 의식 있는 태도로까지 생각합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육현장에서조차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선생님, 노인의 정당한 권위나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꼰대’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날독 여러분, 70대 노학자의 인생 편지,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공과공부가 뻥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울림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전혀 뻥하지도 고리타분하지도 않

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 ‘생활(삶)’의 흥미진진함을 모두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요 10:10).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할 때, 신앙과 삶 구체적으로는 신앙과 공부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가능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좋은 멘토일 뿐 아니라 진리인 멘토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날독 여러분 모두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2015년. 4월.
정문선

1) ‘날독’은 파주 주사랑교회 고등부를 지칭하는, 복음으로 비상하는 ‘날은 독수리’의 줄임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20대 청년, 정연태 군이 손봉호 할아버지께

손봉호 할아버지에게

서점에서 〈답 없는 너에게〉라는 자극적 제목에 오기가 생겨서 집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10대를 위한 서적이었더군요. 하지만 취업을 앞둔 대학생인 제가 읽어도 도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희으로 가득한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해 왔었거든요. 어른들은 대부분 그저 참아내라고만 얘기할 뿐, 10대, 20대들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원리적인 이야기만 해서 실망하곤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도 이렇게 자라왔으니 너희도 그 정도는 견뎌내야지”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이 아니라 “우리 때는 이랬고 너희 때는 이런 상황이라 다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는 청년 세대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에 책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내용 또한 솔직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토대로, 시대는 다르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가지는 고민과 노력들이 비슷하기에 공감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읽었다라면 훨씬 더 영적, 육적으로 성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더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현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희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도구 앞에서 성경과 기도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할아버지가 제시하신 지침들을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줄 생각입니다.

이 외에 이성문제, 돈, 외모, 공부 등 지금 저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저에게 돈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입신양명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더 기도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준비된 일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정말 많은 고민들을 놓고 저희와 이야기하고자 하셨군요. 정답이 쓰여 있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풀어 가는데 주요한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기독교미디어에 관심 있는 파릇파릇한 이십대 청년이다.

이 시대, '어른'이 있을까?

「답 없는 너에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게다가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녀도 부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크기다. 그런데, 이상하다. 읽다가 자주 멈추게 된다. 이 시대의 스승이자 老철학자의 묵직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할아버지가 10대 손자와 대화하듯 편하고 쉽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당신이 겪고 생각한 것들이 맛깔스럽고 구수하게 전해진다. 맘 먹고 읽으면 한 자리에서 죽-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간 중간 책장을 접고 생각에 잠기는 나를 발견한다.

세 아이의 엄마다. 위에 들은 '홈스쿨러'이다. 이 시대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슬퍼진다. 두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생각 없음과 어른 없음 때문이다. 생각 없음-아이들이 생각이 없다니 너무 아이들을 비하한 게 아니냐고 묻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SNS에서나 오갈 수 있는 단조로운 얘기 이상의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대화를 해보라. 이들에겐 고문이 따로 없다. 생각을 요구하는 게 그런 것이니까. 어른 없음-물론 집에는 부모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들, 가끔씩 만나는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다. 그러나 '어른'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자리에 '아이돌'을 올려놓는다.

「답 없는 너에게」는 이런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나 역시도 10대에 이런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 '나 홀로'를 외치거나 세상을 기피하며 자란 건 결코 아니다. 나의 10대- 막 부모로부터 육체는 독립해가고 있었고, 정신세계는 그에 맞는 크기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오롯이 나만의 몫

이었다. 부모님은 촌부로서 성실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법 없이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 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인간이라면 내면에 숨구치고 있었을 삶의 존재 이유들,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참다운 어른이 없었다. 결국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질문들은 물꼬를 만나지 못한 채 싹대를 보냈다.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혼돈 속에서 인생의 중량감을 어찌 견뎌냈을지 두려워진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질문들은 싹대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색채를 달리하며 우리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들이다.

저자는 “요즘 아이들 생각이 없어. 고민하는 것도 너무 알팍하지!”라고 밀쳐놓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사랑을 지닌 너그러운 할아버지로 10대를 품는다. 형식은 가벼운 에세이 같지만, 가장 깊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아이들의 가벼움에 걸맞은 가벼운 이야기로 채워진, 그래서 읽고 나면 속이 허해지는 책이 아니다. 이 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후세대를 향한 전세대의 참다운 어른 역할이다. 세대(世代)는 그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 게다. 앞 세대는 후세대를 향해 마땅히 인간의 존재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어느 시대이든 인생의 본질을 건드리고 답해줄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더욱이 지금은 참다운 어른이 희박한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어른이 침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꿈꾼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멋지게 어른의 역할을 해낼 날을. 

신미숙 아브람과 집에서 길러온 318명이 소돔 땅에서 전쟁 중에 포로되었던 롯, 백성들과 재물까지도 구했던 말씀의 마음에 품고 홈스쿨「캠프 318」에서 시대를 향해 아이들을 준비하고 있다. 평촌 열린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며, 지구촌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 '발표와 토론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